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 감추어지신 하나님

6/19 월

사 45:15  
 15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욥 23:3  
 3 오, 어디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갈 수 있었더라면!  
 시 17:6-8  
 6 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시겠기에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제게 귀를 기울이시어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7 주님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8 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며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겨 주시어

히 1:1-3

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6/20 화

마 6:1-6, 16-18  
 1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2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3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5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6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16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17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18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6/21 수

에 4:14, 16  
 14 이번에 왕후께서 침묵하시면, 유대인은 다른 어딘에서 해방과 구출을 받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 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16 “가셔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저를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삼 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속 1:8-13, 16-17  
 8 내가 밤에 보니, 보아라, 한 사람이 붉은색 말을 타고 골짜기 바닥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데, 그분 뒤에는 붉은색 말과 적갈색 말과 흰색 말이 있었다.  
 9 그래서 내가 물었다. “어르신,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 주겠습니다.”  
 10 그때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11 그들이 화석류나무들 사이에 서신 여호와와 천사께 말하였다. “저희가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 참으로 온 땅이 고요하고 평온하였습니다.”  
 12 그러자 여호와와 천사께서 말씀하셨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신 지 칠십 년이 되었습니다.”  
 13 여호와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16 그러기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곳에 내 집이 건축되리니, 측량줄이 예루살렘 위에 쳐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17 거듭 외쳐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성들은 다시 좋은 것으로 넘쳐흐를 것이다. 여호와가 시온을 다시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

6/22 목

눅 18:1-6  
 1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3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니,  
 4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5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라고 하였습니다.”  
 6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으십시오.”  
 롬 12:12  
 12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엡 6:18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살전 5:17**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6/23 금**

**눅 18:7-8**

7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계 2:8-11**

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9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10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엡 3:16-17**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6/24 토**

**눅 18:8**

8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계 6:9-11**

9 어린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지닌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재자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니,

11 그들 각 사람에게 흰 겹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노예들과 형제들 중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잠시 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8:1-6**

1 어린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2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3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5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져오시어 제단의 불을 가득히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 그때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6/25 주일**

**에 9:15-19, 21-22, 27-32**

15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열나흘날에도 함께 모여 수사에서 삼백 명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6 왕이 다스리는 지방들에 있는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였고,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들 칠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7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열사흘날이었다. 그들은 같은 달 열나흘날에는 안식하면서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18 그러나 수사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달 열사흘날과 열나흘날에 모였고, 같은 달 열닷셋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19 그러므로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 없는 촌락에 사는 이들은 아달월 열나흘날을 기뻐하며 잔치하는 날, 좋은 날, 서로에게 몫을 보내는 날로 삼았다.

21 해마다 아달월 열나흘날과 같은 달 열닷셋날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22 그날들에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하였고, 그달에 유대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도의 날이 좋은 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날들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서로에게 몫을 보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도록 한 것이다.

27 유대인들은 이 두 날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씨 그리고 그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관습으로 확립하여, 이날들에 관해 기록된 대로 정해진 때에 해마다 차질 없이 지키며

28 모든 세대와 모든 가문과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이날들을 기억하고 지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부림절을 거르거나 그들의 씨에게서 이날들을 기념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였다.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기록하여 부림절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를 확정하였다.

30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왕이 다스리는 백스물일곱 지방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 곧 화평과 진실의 말을 전해,

31 이 부림절을 정해진 때에 지키도록 확립해 놓았는데, 이것은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확립해 놓은 대로였고, 자신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일에 관하여 자신들과 자신들의 씨에게 확립해 놓은 대로였다.

32 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절에 관한 이 일들을 확증하였고, 그것은 책에 기록되었다.

**찬송: 501 영광스런 사랑의 주 (申:382)**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1:1-36;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24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Knowing, Reckoning, and Presenting unto Sanctification

Scripture: 로마서 6-7  
churchinnyc.org/bible-study